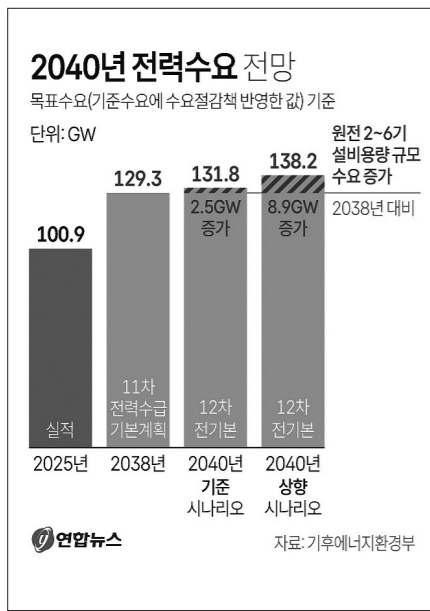


2040년 최대전력수요 131.8GW...1.4배 폭증 우려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안 공개

기준수요 149.9GW...첨단·AI 확대

11차보다 2.5GW ↑ 과도 전망 논란

14년 뒤인 2040년 연중 최대 전력 수요가 최소 131.8GW(기가와트), 최대 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40년 전력소비량은 최소 657.6TWh(테라와트시), 최대 694.1TWh일 전망이다. 이런 전망치는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

된 2038년 기준 전력 수요 전망보다도 늘어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12차 전기본 바탕이 되는 2040년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된

다.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 첫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 된다.

시나리오별 전망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시나리오별 전제의 차이를 보면 2026~204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경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1.0%,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1.3%로 가정했다.

2040년 인구는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5010만명으로 2026~2040년 연평균 0.22% 감소, 상향 시나리오의 경우 5240만명으로 연평균 0.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망을 보면 2040년 전력소비량은 기준 시나리오 기준 기준수요 780.8TWh, 목표수요 657.6TWh로 제시됐다. 상향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기준수요와 목표수요가 각각 819.6TWh와 694.1TWh로 전망됐다.

현행 전기본인 11차 전기본은 2038년 기준수요와 목표수요를 각각 735.1TWh와 624.5TWh로 상정하고 짜였다. 전망 기준 연도는 2년 차이에 불과한데 전력소비량 전망치는 큰 차이가 난다.

2040년 연중 최대 전력 수요 전망은 기준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기준수요 149.9GW, 목표수요 131.8GW로 예상됐다. 상향 시나리오 적용 시 기준수요 전망은 156.8GW이고 목표수요 전망은 138.2GW였다.

11차 전기본상 2038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은 기준수요 145.6GW, 목표수요 129.3GW이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에 필요한 전력 소비 증가가 반영되기 때문인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과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과 2040년 사이 최대 전력 수요가 2.5GW에서 8.9GW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원자력발전소 2~6기 설비용량과 맞먹는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는 향후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등 자가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과 미래 수소 발전 계획 등을 반영해 수요 전망을 재검토하는 한편 처음으로 지역별 전력 수요 전망을 산출해 내놓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22일 서울 중로 센트로폴리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삼성전자서비스 등 22개 기관·기업이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면 탄소중립 1만p 지급

광주시-기후부,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천 업무협약 지자체 유일 참여...에너지 생산형 실천모델 선도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가정용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탄소중립포인트 1만p를 추가 지급한다.

광주시는 22일 서울 중로 센트로폴리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삼성전자서비스 등 22개 기관·기업이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부가 일사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에 대해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참여한 22개 기관·기업 중 탄소중립포인트제 연계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을 펴는 지자체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이는 광주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전기·수도·가스 절약 등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광주시의 모델은 가정에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공동주택 베란다에 1kW 이하의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가구는 설치 때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1회당 1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설치 보조금과는 별개로 제공되는 추가 특전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5300세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왔다. 올해에도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50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탄소중립포인트제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주택용(3kW) 태양광 보급 때 3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손동영 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시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된 것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광주형 에너지 생산' 모델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까지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1877kW 규모의 발코니 태양광 설비는 연간 약 1088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6만 5000 그루를 식재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거대한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과 닮았다는 가치를 지닌다.

미니 태양광 설치를 통해 월 평균 약 45kWh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양문형 냉장고 1대의 월간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으며 매달 약 8000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민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 경제인의 세정 관련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욱 건전하고 활기찬 경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חס인 광주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여성 경제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인들이 경영에안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현아 기자 aura@

광주국세청, 여성 기업인 세정 애로 청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와 현장소통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חס인)은 22일 오후 3시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회장 이민순)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광주지역 여성경제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חס인 광주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여성 경제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인들이 경영에안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현아 기자 aura@

이민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 경제인의 세정 관련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욱 건전하고 활기찬 경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חס인 광주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여성 경제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인들이 경영에안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현아 기자 aura@



광주지방국세청은 22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프랑스 선사 '씨엠에이씨지엠' 광양항 취항

아시아~북미 8000TEU 주1회 연 10만TEU 물동량 창출 기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계 3위 프랑스 국적 선사 씨엠에이씨지엠(CMA CGM)이 아시아-북미 원양노선을 운항하는 'PEARL ASI팬들럼 서비스'를 유치, 주 1회 광양항을 기항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지난 21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한국국제터미널에서 CMA CGM 코리아 대표, 한국국제터미널 대표, 항만공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MA CGM 광양항 미주 서비스 신규취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8000TEU급 컨테이너선 이 매주 1회 광양항을 기항하면서 연간 10만TEU의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신규 기항하는 'PEARL ASI팬들럼 서비스'는 광양-청다오-상하이-닝보-서코우-싱가포르-나바세바(인도)-문드라(인도)-카라치(파키스탄)-콜롬보(스리랑카)-싱가포르-하이퐁(베트남)-샤먼(중국)-난샤-안티안-LA(미국)-광양항을 운항한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세계적인 해운기업 CMA CGM이 핵심거점으로 광양항을 선택했다는 것은 광양항이 글로벌 공급망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광양항 선사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는 항만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세계 3위 프랑스 국적 선사 씨엠에이씨지엠(CMA CGM)이 아시아-북미 원양노선을 운항하는 'PEARL ASI팬들럼 서비스'를 유치, 주 1회 광양항을 기항하게 됐다.

신협, 자산관리회사 설립 속도낸다

10월 영업 개시 목표...부실채권 관리 역량 강화

신협중앙회는 신협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과 지난 21일 공포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자산관리회사 설립은 그동안 신협 구조적 과제로 지적돼 온 부실채권 관리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채권 정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실 예방과 경영 개선 지원 기능까지 통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기존 부실채권 정리를 맡아온 'KCUNPL대부'와 함께 연계를 안정과 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KCUNPL대부가 총자산 한도 등 규제로 매입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것과 달리,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추가 출자 부담 없이 보다 탄력적인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필요할 경우 예금자보호금 차입도 가능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신속성과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업무 범위 역시 확대된다.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은 물론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실채권의 매입부터 회수가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 정리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 조합의 건전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 역시 관련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광주·전남의 2월 출생아 수가 1300명 늘면서 같은 달 기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 출생아 수는 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명(18.8%) 증가했다.

전남도 지난 2월 출생아 수 769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96명(14.2%)이 늘었다.

이에 광주·전남의 2월 출생아 수는 1366명으로 지난 2021년 2월 1360명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지난해 2월 광주 4.6명, 전남 4.9명에서 전년 2월 광주 5.5명, 전남 5.7명으로 각각 0.9명, 0.8명이 늘었다.

결론 건수는 광주가 지난해 2월 518건에서 451건으로 68건(13.1%) 감소했다.

2월 광주·전남 출생아 1356명 5년만 '최대'

조출생률 5명대 회복...전국 증가율은 역대 최고

이론 건수는 같은 기간 208건에서 15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남은 지난해 2월 결혼건수 602건에서 15건(2.5%) 늘어난 617건이고, 이론 건수는 269건에서 251건으로 줄었다.

사망자 수는 광주·전남에서 각각 727명, 1588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약 2만3000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88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47명(13.6%) 늘었다.

출생아 수는 2월 기준 2019년(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크고,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이론 건수는 같은 기간 208건에서 15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남은 지난해 2월 결혼건수 602건에서 15건(2.5%) 늘어난 617건이고, 이론 건수는 269건에서 251건으로 줄었다.

사망자 수는 광주·전남에서 각각 727명, 1588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약 2만3000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88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47명(13.6%) 늘었다.

출생아 수는 2월 기준 2019년(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크고,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